10월 1차 오디션 남자 대본

**남자**

**70세 남자(속은 10대 아이지만 겉모습은 노인)**

(혼잣말. 들창문을 열고) 온통 눈밭이네 (갑자기 생각났다. 걱정이다)...허... 큰일 났다. 눈을 밟으면 발자국이 찍히잖아. 마당에 발자국이 남으면...(울상)

내가 도둑이라는걸 다 눈치챌거야...(고민) 마당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대문 밖으로 나갈 방법은 없을까? (한숨) 도둑질은 정말 힘든 일이구나.

(벌떡 일어나서 옷 입는다)... 이러고 있을 틈이 없어!

(방문 조심해서 열고 나오다가 안방 앞에서). 응...? 아직 주무시는 것 같은데... (다행) 히히 잘됐다.

10월 1차 오디션 여자 대본

**여자**

**30대 노처녀 마르고 예민한 수다장이**

뭐해? 빨리 나와서 날 도와줘야 될 거 아냐!! 넌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래? 너라면 딴 사람이 있는데 그걸 하겠냐! 누가 봐도 내가 당하는 거였잖아! 나 소리 지르는 거 못 들었어? 그걸 못 들었다고? 내가 목이 터져라 질렀는데? (기막힌) 흡수? 하, 그럼 내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볼까? 아우, 정말 쪼다 같은 게...

**30대 노쳐녀 둔하고 한박자 느린반응의 여자**

나한테 무슨 냄새 나요? 마주 보면서 그러니까 좀 그렇네요. 근데 뭐 건졌어요? (크게) 정말! (나중에 알고 소리 죽이고) 아차... 정말요? 일단 눈으로 보기에는 서너명 정도...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... 가만있어봐요. 우린 지금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데. 눈치를 챈 걸까요? 아니, 그렇다면 얼른 도망 가야지. 왜 우리 쪽으로? 잠시만요. 그럴 리가요!